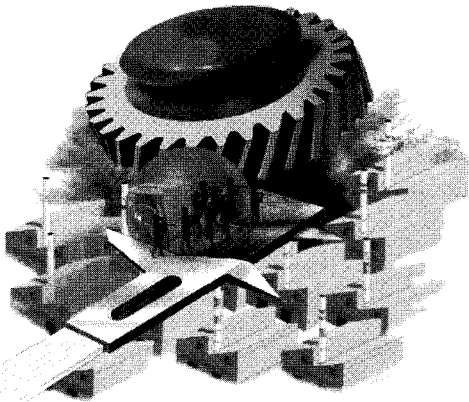


편집위원기고

# 농업관련 산업부문 기술개발 투자 확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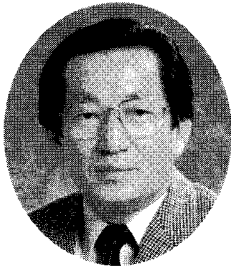


농업부문 예산 삭감 안될말  
장기적 투자 통해 희망있는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 급변하는 농업환경

근년에 우리농업은 두 번의 충격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농업 전체를 엄청난 파급으로 몰아넣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농업협상으로 우리농업은 국제화의 필연성을 겪어야 했고 냉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을 경험했다. 즉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연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농업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사업과 농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IMF관리체제하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어느 부문이나 예외없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겪고 있다. 자금지원의 댓가로 우리에게 경제개혁과 구조



권원달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조정 그리고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부문도 IMF와의 합의사항 이후 환율과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찍이 겪지 못했던 충격을 받고 있다. 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자율 상승 또한 농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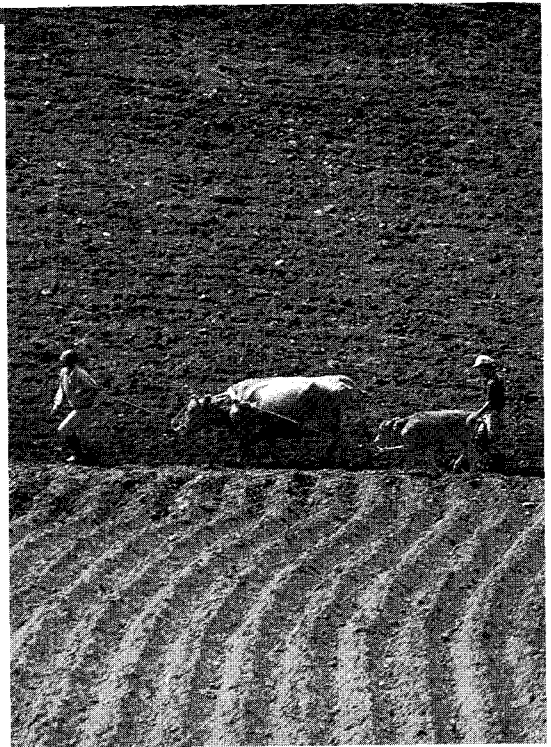
IMF관리체제로 일반 경제부문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고있어 농업부문은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나 후속적으로 나타날 파장은 더 길고 더 구조적이어서 타부문에 비하면 더욱 장기적으로 충격이 올 것으로 보여진다.

### IMF체제하의 농업협상

IMF관리체제 이후 농업부문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98년도 농림부문예산은 당초 8조5천2백75억원에서 7조9천3백24억원으로 5천9백51억원이 삭감되었다. 99년도 예산도 7조6천4백25억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삭감되었다. 농업부문 예산삭감으로 인한 농업과 농촌부문 투자지원이 줄어들면서 농업성장이 위축되고 농촌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경기침체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탄력성이 높은 고급청과물과 육류소비 감소로 전례없이 수요가 부진한 상태이다.

그 동안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경쟁력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소비침체로 인한 이들 농산물 수요가 크게 감소되어 품목마다 생산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로 전반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육류와 신선채소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데 채소류는 20%정도, 과일류는 30%정도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농업인이 영농의욕을 갖고 위기극복을 하게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요 공간이라는 사실을 갖게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일 것이다.**

IMF체제하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환율이 상승되면서 농업용원자재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농업부문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비료, 농약의 제조원가 상승도 마찬가지이다. 배합사료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중이 77%정도이고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96%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바로 배합사료 제조원가를 인상시켜 양축농가 부담을 늘리게 되었다. 그 동안 양돈, 양계농가중 많은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농약의 제조원가 인상요인도 35~60%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비료가



격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여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

다. 실제로 농업용 원자재의 수입금액 증가는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율상승은 수입농산물의 소비감소와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여러 품목에서 나타나는 수출증가 현상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가 떨어져 출혈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IMF관리체제 이후 산업계 전반에 나타난 현상은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체계가 계속되어 자금압박을 가중시켰다. 특히 농업부문의 자금부담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났다. 축산업, 시설원에 등 자본집약적 부문은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아 금리 부담을 받게된 것이다.

많은 양축농가들이 사료비 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며 시설원예농가들이 열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탄으로 대체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다했으나 성공한 농가보다 실패한 농가가 많아 농가부채는 늘어만 갔다. 그것은 영농방식과 기술이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년동안 우리농업은 지나친 시설과 기계화로 인해 멍이들었다.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 시설을 확대하거나 부화뇌동식으로 경쟁적으로 기계를 도입하거나 시설을 늘려 농가규모에 맞지 않게 전시적인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많은 시설채소류 재배농가들이 광열비 부담 때문에 겨울철 영농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가의 시설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농가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환율인상과 고금리문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하며 자금의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농업관련산업 부문에도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생산하는 농업관련기업들은 자금시장경색과 이자율 상승으로 전에 없던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업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농가경기 침체로 언제 회복할는지 기약 없는 상태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용이해 지면서 농업자재산업과 유통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농업관련산업의 불안정도 농업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미 외국기업이 종묘업계에 진출하여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외국기업에 인수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농약, 농기계, 종묘업 등 부채비율이 높고 원자재의존도가 높은 농업관련산업은 경영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자재산업 공급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탈출해야 할 정책방향

우리농업은 비교적 타부문에 비해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급효과가 보다 장기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금융제도와 그 운용에서 비롯된 것이 공통점이지만 농업부문이 더욱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시책개발이 꾸준히 추진되어 농업성장을 위축하지 않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들 국가가 체험한 공통점은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부문 안정이 필요하며 농업생산이 침체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고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특히 농약, 비료, 농기계, 종묘 등 농업관련산업을 육성하여 안정된 가격으로 농업투입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1년의 과정에서 농업부문도 IMF체제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농업부문도 환율과 이자율상승이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농업자재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IMF관리체제가 적어도 99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며 그것이 풀려진다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은 장기간 여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농업부문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일 것이며 식료품의 소비는 상당한 기간동안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IMF터널을 탈출하기 위한 장단기 시책이 국가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예산중 농업부문예산은 계속 삭감되지 않아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부문은 계속 성장되고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은 일단 침체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계속되는 작황호조로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만약 생산기반조성과 유통구조개선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유자가 삭감된다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영농의욕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은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비용절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축산업과 시설원예 부문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영농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특히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투입재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관련산업은 취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확대가 어렵고 해외자본의 침투로 산업자체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투자가 지극히 제약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농업관련산업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같은 장기간에 많은 투자를 요하는 농업생산기술과 농업자재산업 부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을 희망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농촌에는 전에 없이 도시민들이 귀농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서 도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농업과 농촌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농업인이 영농의욕을 갖고 위기극복을 하게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요 공간이라는 사실을 갖게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일 것이다. **농약정보**